

NEWS

MBC

파블로항공과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MOU 체결



MBC는 8월 17일 드론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 파블로항공과 ‘글로벌 무인이동체 분야 실증 사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블로항공은 드론과 무인 지상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트럭 등 무인 모빌리티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MBC 방송인프라본부 방송IT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망기반 정밀 측위 기술인 ‘브로드캐스트 RTK’를 파블로항공의 무인 모빌리티에 공급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파블로항공과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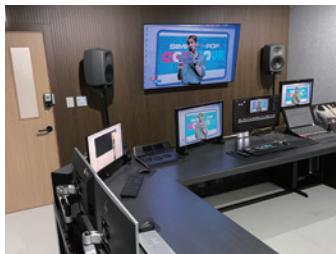
EBS

9월 1일 신입사원 입사

2021년 9월 1일부로 EBS 신입직원들이 입사한다. 이번에 선발된 신입직원은 총 29명으로, PD, 기자, IT 방송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직군의 인재들이 모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를 거치며 입사 절차부터 쉬운 것이 하나 없었지만, 열정과 실력으로 극복하며 최종관문을 통과한 새 얼굴들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국제방송 NLE Master실 구축



아리랑국제방송은 20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NLE Master 두 실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Linear 종합편집실

과 특수영상실 각 두 실씩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NLE Master 실로 개명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두 실의 기능을 한 실로 통합했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영상 편집, 오디오 믹싱, 색보정, VFX, 자막 송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Davinci Resolve SW를 기반으로 구축된 NLE Master 실은 기존보다 시스템이 매우 간결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Rack 실을 따로 두지 않고 모든 H/W를 데스크 밑에 거치시켰고 장비의 발열 컨트롤을 위해 각 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운용 인력 역시 기존의 절반 인원으로 줄어 인력 재분배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

한국방송협회

제58회 방송의 날 공식 표어 선정

‘ON AIR, 세상을 켜는 불빛입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제58회 방송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의 시·청취자 및 방송인을 대상으로 한 표어 공모에서 ‘ON AIR, 세상을 켜는 불빛입니다’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방송의 가치, 국민과 같이’와 ‘함께 만드는 방송, 같이 누리는 미래’ 2편이 선정됐다. 접수된 표어는 총 1,318편으로 440대 1의 경쟁에서 총 3편이 결정되었으며, 당선작은 제58회 방송의 날 공식 표어로 채택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TBS

라디오 가을 개편



미디어재단 TBS 라디오가 지난 8월 23일 시사, 교통,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TBS 대표 프로그램인 '9595쇼'는 5명의 DJ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펼치는 디제잉쇼 'DJ Show 9595'로 단장하고 라디오와 유튜브를 결합해 새롭고 경험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신개념 교통 예능 프로그램인 '김기우의 라쿠카라자'를 신설하고 자동차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에 관한 재미있는 정보와 토크로 꾸며지고, 이어 퇴근길 라디오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땀 흘려 일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듯한 방송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

업계 최초 카카오톡 상품 가입 서비스 론칭



KT스카이라이프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바로톡'을 출시하고 유료방송 최초 카카오톡 상품 가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AI 전문기업 메이크봇과 비대면 서비스 바로톡을 개발, 언택트 시대 비대면 소통 창구를 강화했다. 카카오톡에서 바로톡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 상품 가입이 다이렉트로 가능하여 24시간 TV, 인터넷, 모바일 등 상품 가입과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로톡은 △ 자주 묻는 질문 FAQ △ 특별혜택 확인 △ 모바일 바로유심 신청 △ 모바일 셀프 개통 △ 이벤트 확인 등 KT스카이라이프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해 고객 편의와 정보 정확성을 높였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21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2021 정기 대의원대회가 지난 8월 26일 개최되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대의원들이 참여해 지난 1년간의 경과보고와 연합회 사업에 대한 활동 성과 등을 공유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27-1대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서 회계 감사 보고가 있었고, 두 번째 안건은 제27-2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 건이 진행되었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회칙 변경이 있었다. 이 중 제5장 재무 제21조에 의거 연합회의 회계연도 시작이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1월 1일부터로 변경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즈니 플러스

11월 한국 서비스 시작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세계 61개국 21개 언어로 서비스 중인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11월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시아태평양에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이미 디즈니 플러스가 제공되고 있고, 11월 한국과 홍콩, 대만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콘텐츠에는 기존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함께 지역별 오리지널 콘텐츠도 추가하는 '스타'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정되어 영화, 드라마와 그 외 다양한 콘텐츠까지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제휴사로 LGU+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존 넷플릭스 제휴에서 볼 때 수익 배분이 9대 1을 따르는 종속적인 계약이 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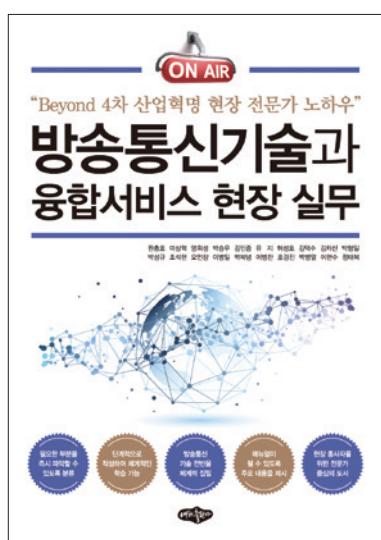
방송기술교육원, '방송기술정석(심화)' 교육 실시

일정	시간	강사	주요 교육 내용
9/7 (화)	09:40~10:00	방송기술교육원	• 교육사업,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0:00~12:00	우주형 Telestream 지사장	• HDR 트렌드, 기술 이해 • HDR 신호 품질관리
	13:30~15:30	나재희 MBC 제작기술국 감독	• 쇼, 교양 조명 제작 과정 • 드라마, 보도 제작 과정
	15:30~17:30	송재익 KBS TV기술국 감독	• 드라마 음향 (후반)제작 과정 • 음악 프로그램의 믹싱
9/8 (수)	10:00~12:00	손형식 KBS 영상제작국 감독	• 방송 촬영이란 무엇인가? • 카메라, 영상의 발달과정 • 최신 방송 영상, 특수촬영
	13:30~15:30	김선국 MBC 보도기술부 차장	• IP 스튜디오 기초 • IP 방송신호 실전
	15:30~17:30	한광만 SBS 편집기술팀 차장	• 방송 편집 기술의 기초 • UHD 후반작업
9/9 (목)	10:00~12:00	최호경 KBS 중계기술국 감독	• 중계의 세계 • 중계 장비와 원격 중계
	13:30~15:30	최석준 KBS 남산송신소 팀장	• 방송 안테나 및 지상파 네트워크 이해 • UHDTV 송신인프라 및 실무
	15:30~17:30	임종근 SBS 미디어 IT 팀 차장	• 방송 IT 기술 소개 • SBS 제작시스템, Workflow 소개 • HD/UHD 제작시스템 및 분배
	17:30~17:40	방송기술교육원	• 설문조사 및 종료

입사 4~6년차 지상파 방송기술 현업인을 대상으로 방송기술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기술교육원의 방송기술정석(심화) 교육이 9월 7일부터 3일간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 촬영기법 및 영상장비에 대한 이해, 방송 제작(영상·음향·편집) 장비 설정과 시스템 설계, 중계방송 기초 지식 이해 및 다양한 사례 소개, 송출·송신기술의 전반적인 과정 이해 등 방송기술 관련 주요 이론과 실무, 트렌드가 교육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은 지상파 방송기술인 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 **교육일정 :** 2021.09.07.(화) ~ 09.09.(목) 총 3일
- **교육대상 :** 지상파 방송기술인 22명 (입사 4~6년차)
- **교육장소 :**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진행**
- **접수방법 :** 8월 25일부터 홈페이지
(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 **문의사항 :** 02-3219-5640~1, bea@kobeta.com

'방송통신기술과 융합서비스 현장 실무' 서적 발간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방송전파통신전문위원 20명(이하 집필진)이 4차산업을 넘어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 융합, 다양성에 부합하는 '방송통신기술과 융합서비스 현장 실무'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 전문도서를 발간했다. 집필진은 2020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방송통신기술을 주변에 알리고, 공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기술사로서 지식공유라는 책무하에 방송통신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이론, 실무, 현장운용 및 관리, 기술 및 동향 이슈, 전망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총망라하여, 본 실무도서를 출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총 5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네트워크 시스템, 지상파방송 시스템, 2부는 유료방송 시스템인 IPTV, CABLE, 위성방송, 3부는 IT 방송, 실감미디어, 방송미디어유통 서비스, 4부는 무선통신 기술 및 모바일 방송 융합 서비스, 5부는 주요 방송통신 관련 법규, 적합성평가, 구내방송, 재난방송, 비상방송, CCTV, 건축물 공동수신 설비 등 정보통신 시장에 적용되는 주요 핵심기술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 저자 : 원충호, 이상혁, 양희성, 박승우, 김민중, 유지, 허성호, 김덕수, 김차신, 박형일 외 10명 지음
- 쪽수 : 742쪽 / · 정가 : 35,000원 / · 출판 : 내하출판사

KBS·ETRI·한국해양대, ‘IEEE 방송기술 최우수논문상’ 수상



IEEE BMSB 2021 최우수 논문 상판

제16회 국제 전기전자공학회(IEEE) 방송 및 멀티미디어 심포지엄(BMSB) 2021에서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해양대학교가 과기정통부 국책과제 ‘5G와 방송망(ATSC 3.0) 연동 전송 기술 개발’ 연구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논문 제목은 ‘Impact of Cross-Polarization Discrimination for ATSC 3.0 MIMO System’이며 수상자는 ETRI 미디어방송연구실의 정회윤(선임), 박성익(책임), 임보미(선임), 권해찬(선임), 허남호(책임), KBS 기술본부 전성호(팀장), 한국해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해양인공지능융합전공 김형석(박사과정), 김정창(지도교수)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ATSC 3.0 표준에 따른 MIMO 기술이 적용된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구·개발한 뒤 ‘KBS 경기 갑악산 UHDTV 실험국’에서 900W 송신하고, 최대 113Mbps 직접 수신에 성공하였다. 필드테스트 결과는 지난 4월 28일 개최된 ‘8K-UHDTV 워크샵’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한 바 있다. 본 논문을 통해 ATSC 3.0 MIMO 표준 기술이 고출력 온에어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으며, 실제 방송 송수신 환경에서 MIMO 채널의 특징을 실측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필드테스트를 통해 획득한 MIMO 기술 노하우는 새롭게 개발 중인 3GPP 5G-Broadcast 송수신기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IEEE Senior Member 임명판

이번 필드테스트 기술 검증을 위해 KBS 기술본부의 여러 부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특히 8K-UHD 콘텐츠 제작에 후반제작부, 실험국 인허가 업무에 기술기획부, 실험국 구축 및 운영에 KBS 인증센터, 네트워크운영부, 남산송신소, ATSC 3.0 송수신 정합 테스트 및 본사-실험국 간 IP 전용회선 운영에 미디어송출부 등 각 부서의 연구개발 역량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성과라는 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대표 수상자 중 한 명인 전성호 KBS 팀장은 2020년 10월 IEEE Senior Member로 승격된 바 있다. 종신임기인 IEEE Senior Member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 일반회원(Member) 가운데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과 지속적이고 상당한 업적이 있는 후보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3명 이상의 IEEE Fellow나 Senior Member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심사후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체 회원의 10% 정도만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